

힐링독서

힐링독서는 이렇다.

- (1) 전투독서를 통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나서 실행하는 편이다.
 - (2) 그 이유는 몸과 마음의 휴식을 주기 위해서이다. 전투를 치른 병사에게 휴식을 주지 않으면 다음 전투를 치를 수 없다. 휴식을 주지 않고 계속 전투만 치르면 병사들은 이탈한다. 심한 경우에는 지휘관을 살해하기도 한다.
 - (3) 힐링독서의 목적은 '**내 삶을 점검하고 내면을 돌아보게 해준다**'.
 - (4) 힐링독서를 마치고 나면 얻는 효과/기대하는 결과는 '**내면의 성숙함**'이다.
 - (5) 전투독서가 기술적인(정량) 레벨업이라면 힐링독서는 예술적인(정성)레벨업을 가져다준다.
- 기술과 예술의 개념은 야마구치 슈 작가의 '일을 잘한다는 것'을 통해서 개념화하면 된다.
- (7) 전투독서보다 천천히 읽는다.
 - (8) 책을 읽으면서 평화로움을 느껴야 한다. 명상과 같은 효과이다.
 - (9) 지금까지 힐링독서라고 생각되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.

결혼 / 연애 / 섹스 / 육아 / 일(JOB) / 돈 (기술적인 재테크가 아닌 돈 그 자체)
운동 / 독서 / 공부 / 음식 / 여행 / 요리 / 자서전 / 전기 / 철학 / 역사 이야기
출생 / 죽음

(10)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목표를 달성하는 전투독서와는 달리

우리가 죽을 때까지 '생각'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한다.

세상이 바뀌면 이 주제에 대한 포지셔닝/관점도 변해야 한다

이와 같은 주제로 '다름'을 만났을 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고 하기보단 받아들이면 '공생'할 수 있다.

역지사지 (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고 싶다면 반드시...내 것으로)

전투독서와 힐링독서

내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하면 독서의 효과가 더욱 좋을 것 같다.

가장 중요한 건 '독서'를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한다.

대부분의 부자는 독서와 운동(특히 걷기/달리기)을 꾸준히 한다.

부자를 꿈꾼다면 꾸준히 해야 한다. 부자가 정확히 뭘지 모르니깐 알고 나서 한다고?

그냥 하는 거다. 그럼 내가 생각하는 부자/세상이 인정하는 부자를 알게 된다.